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06 **06** 2016



창조과학탐사 이어져

5월 첫 주 서울드림교회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창조과학탐사가 이어집니다.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창조과학탐사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역자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초 충신교회

지난 4월 5-12일 1주일간 서초충신교회(담임목사 배철희)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작년에 목사님 부부께서 다녀가시고 나서 지난 3월 충신교회에서 사흘간의 부흥회에 이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성경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더 없이 귀중한 도구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창조과학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특별히 유신론적 진화론의 위험성과

이미 퍼져 있는 이 사고를 빨리 성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총신교회는 이미 2017년과 2018년 창조과학탐사의 스케줄을 잡을 정도로 분명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부 사랑의교회와 알바인 디사이플교회

지난 4월 25-27일 동부 사랑의교회(담임목사 박승규)와 알바인 디사이플교회(담임목사 고현중)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친분이 있으신 두 담임목사님께서 함께 하셔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최근 이민 교회 교인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 특별히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로서 성경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이 진화론 시대에 이민 교회가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 돌아서도록 모두 노력해야겠다는 같은 생각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2세 창조과학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에는 CGNTV 유재건 장로님 내외도 참석하셨습니다.



시카고그레이크교회



동부사랑의교회 & 알바인디사이플교회

창조과학세미나

이동용 박사는 4월 3주에 걸쳐 시카고 그레이크교회(담임 원종훈 목사)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약 60여명 2-5학년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하며 The Bible Has Answers! 주제로 1. Six days of Creation, 2. Dinosaurs & Bible, 3. Genesis Flood 매 시간 성경에 답이 있음을 나누고, 그 증거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험도 하고 화석들도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에 답이 있음을 배우게 하는 이런 기회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창조과학학교

중부 창조과학학교 20기가 시카고 제일연합 감리교회(담임 김광태 목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11일 개강하였으며, 22명이 등록하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일을 배우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확률과 우연이 하나님과 어울릴까?

진화 순서뿐 아니라 진화 과정까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창조과학자나 지적 설계 운동가들이 확률을 통해 진화의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자세까지 비판하기도 한다. 아래가 그 예들이다.

“우연이라고 설명되는 현상이 설계를 배제한다고 생각하나? ... 신이 우연한 사건을 이용하여 특정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신이 그렇게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다.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 주는 경우가 꽤 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당첨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외부의 통제나 방향성 없이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¹

“이처럼 무작위적(또는 우연)이라는 단어의 과학적 사용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아무런 모순 없이 어울린다.”²

“하나님은 제비 뽑기나 유전자 돌연변이와 같은 특정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설계해 두셨다. 하지만 일부 무작위적 현상이나 모든 무작위적 현상에 대해 하나님은 한 가지 특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정해 놓으셨을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대단히 희박해보이지만, 우주의 여러 특성은 생명이 존재하기에 정확히 조율되어 있다.”³

이와 같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설계 방식을 확률과 우연으로 받아드릴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예로 복권을 당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독자들을 참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 우연과 설계를 함께 묶는 것도 고개가 가우뚱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자연적이지 않고 발생 불가능한 확률을 통해 진화를 일으키신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확률을 통해 어렵사리 진화시키셨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전능하신 손길로 완벽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들 중에 어느 것이 믿기 쉬울까? 여기에 복권을 당첨시키는 예나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예가 과연 진화를 통해 생물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주장을 위한 적절한 예가 되는 것일까?

수학자들이 우주에서 발생가능한 일의 최소 빈도를 $1/10^{50}$ 로 정했다는 것은 $1/10^{50}$ 보다 작은 확률은 희박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을 확률에 의해 진행되도록 설계했다는 말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불가능한 일은 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기적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그 적합한 단어 쓰기를 꺼리고 모순적인 말로 사고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일상 생활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순서와 빈도를 인간의 두뇌나 경험으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엄밀히, 원인이 전혀 없는 우연이란 사건은 존재할 수 없다.

다음 스프라우(Robert Charles Sproul)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연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여기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 될 것이다. “만일 그 피조물이 우연히 생겼다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일이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연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연이란 없다”⁴ 우연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은 비인격적이다. 우연은 결코 지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우연과 하나님은

1. 우종학,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우종학, IVP, 2014, p. 92, 93
 2. Haarsma, Deborah and Haarsma, Loren, Origins: Christian Perspectives on Creation, Evolution, and Intelligent Design, 2011,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Grand Rapids, Michigan. (오리진, IVP, 2012 p. 60, 61).
 3. Collins, Francis, 2006, The Language of God, Free Press (신의 언어, 김영사, 2009, p. 202)
 4. Sproul, R. C., 2014, Not A Chance, Baker Book, Grand Rapids, Michigan, 49516.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인가? 창조를 말하면서 우연과 확률을 말한다 면 이는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인격적이며,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스프라울이 덧붙인 것처럼 “어떤 일을 발생시킬 힘을 우연에 부여한다면 이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문제다”라는 말은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할 말일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진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어물릴 수 없는 상상이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언급하실 때는 확률이란 의미가 담겨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소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다음에서 등장한다: 속죄제를 드리는 두 제물 가운데 어떤 것이 여호와께



드릴 것인지 아사셀의 것인지 뽑을 때(레 16:8,9), 중축에 따라 땅을 분배할 때(민 33:33; 수 18:10),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범죄한 아간을 뽑을 때(수 7:14-18), 제사장 직분과 성전에서 일하는 역할을 나눌 때(역상 24-26장)이다. 여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계획과 그분께 주권을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또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잠 18:18)와 같이 제비 뽑기는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편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편이지, 생물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는 그분의 설계의 방편이 아니다.

제비 뽑기나 복권 당첨의 그 발생 빈도는 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의 확률을 가진다. 그러나 단순한 세포는 고사하고라도 생명체에 사용되는 유기물 분자 하나가 형성될 확률조차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확률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니 확률을 가지고 논할 때, 제비 뽑기와 진화는 결코 호환될 수 없는 전혀 다른 문제다. 불가능한 확률을 통해 진화를 일으킨다고 하느니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진화 기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 창조 기적 대신에 진화 기적을 택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비이성적인 무리한 발상까지 동원하는 것은 단지 창조론자가 언급한 것에 대한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창조론자들이 확률을 통해 진화의 불가능성을 제시할 때, 실제 의도를 제대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조과학자들은 아미노산이 우연히 조합되어 단순한 생명체의 단백질 하나를 만들 확률이 1/10²⁵라는 식으로 진화의 불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런 설명은 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해서 그렇지 오�히려 확률적으로 접근할 때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확률이란 상대 빈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인을 제한시켜야 적용할 수 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요인이 더 늘어나면 그 확률이 훨씬 더 작아지기 때문에 확률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실제 의도이다.

오늘날 가장 극단적인 진화론자라고 한다면 도킨스(Richard Dawkins)일 것이다. 그는 가장 극단적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생각에도 지구에서 생물의 우연 발생은 불가능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추방(Expelled)’에서 진행자의 추궁에 이 복잡한 우주의 첫 시작은 ‘아마도 더 높은 지능 소유자의 디자인’ 일수도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⁵ 그런데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높은 지능’을 이용해 우연을 만들어 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신론자인 도킨스보다도 더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분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진화론에 대한 미련이 굳은 마음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5.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 2009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서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으니라 하라” 출 31:17



우리의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 화학적 법칙들은
정말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생명이 스스로
진화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무(無)로부터 나온 우주?(2)

(지난 호에 이어) 더우기, 물리학의 법칙들이 우리의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에는 수많은 심각한 논리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물리학의 법칙들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관찰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운동량과 에너지의 보존에 관한 법칙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문자적으로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한 관찰로부터 나온다. 그 누구도 우주가 태어난 것을 관찰한 적이 없다. 그것은 우주를 태어나게 할 물리학의 법칙들은 완전히 우리의 경험 영역 밖이라고 하는 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들을 단순히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우주의 자발적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더 높은 “초월적” 혹은 “초과학적” 물리학 법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가상적 초월적 혹은 초과학적 물리학 법칙들이 완전히 우리의 경험 영역 밖에 존재한다면, 왜 무신론적 물리학자들은 순진하게 불확정성의 원리와 같은 법칙들이 우주의 창조를 묘사할 때 적용된다고 가정하는가? 그들은 소위 “다중우주” 내의 관찰되지 않은 그 밖의 우주들이 우리의 것과 매우 다른 물리학의 법칙들을 가질 수 있다고 마음대로 가정한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단지 우리의 우주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

이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왜 우리의 우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논할때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는지 분명치 않다. 아마도 불확정성의 원리가 그러한 초월적 물리 법칙들 중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동일하게 그렇지 않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온갖 종류의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정은 과학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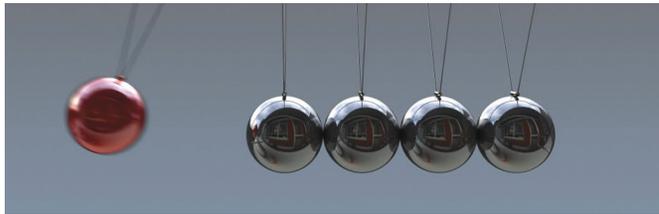
더우기, 이러한 초월적 물리 법칙들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우주 밖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코스모스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딜레마를 제공한다. 칼 세이건은 죽기 전에 ICR의 과학자 래리 바디만에게 답변하면서, 그의 세계관에 존재하는 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기원에 관한 그의 견해에 따르면 물리학의 법칙들이 우주를 창조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칙들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코스모스 외부의 물리 법칙들의 존재 자체는, “코스모스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그러했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잘 알려진 격언과 명백히 위배된다.

물론, 무신론자들은 단지 우주는 시작이 없고 영원하다는 주장에 다시 의지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조차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을 남긴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소위 “다중우주”라고 불리는 코스모스 전체는 무한하지만, 그것은 무한

히 많은 개별적 우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속한 우주는 단지 137억년 전에 시작되었다. 다른 관찰 불가능한 우주들의 존재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다 - 왜냐하면 다중 우주는 무한히 많은 우주들을 포함하며, 적어도 이들 우주들 중 하나는 물리학과 화학 법칙이 생명의 존재에 적합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단지 그러한 우주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가 있다: 우리의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 화학적 법칙들은 정말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생명이 스스로 진화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들은 생명의 진화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수십 년간, 창조론자들은 “화학 진화”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누군가 다른 관찰 불가능한 우주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그러한 다른 우주들에 존재하는 물리, 화학 법칙들이, 생명이 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우주에 생명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명백한 논리를 깨달았어야만 한다 -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보여 준다 (로마서 1:21-23).

“무로부터 다중우주”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문적 배경이 인상적이라 하더라도, 그 시나리오는 완전히 비이성적이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허망한 생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Jake Hebert (Ph.D. in Physics) / 번역 : 이충현

출처 : Hebert, J. 2012, A Universe from Nothing? Acts & Facts, 41 (7):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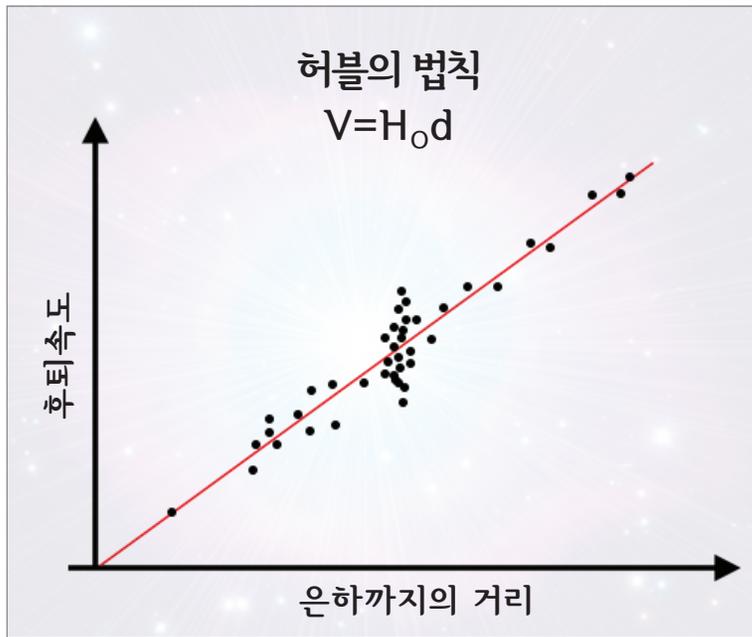
우주의 나이 137억년은 측정된 것인가, 아니면 정해진 것인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다면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우주의 나이를 허블 시간이라고 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이다.”^[1]

“137억 년 전에 일어난 빅뱅으로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가 생겨나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2]

과학교과서 뿐만 아니라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 드라마에서조차 우주의 나이가 137억년이라고 말해지는 것을 접한다. 과연 그 나이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위에서 보듯,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서는 137억년이라는 우주의 나이가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허블 법칙으로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허블(Edwin Powell Hubble, 1889-1953)은 1919년 윌슨산 천문대에서 100인치 망원경을 이용해 우리 은하 밖에도 많은 은하들이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관측했다. 그리고, 1929년 그 은하들의 흡수스펙트럼에 나타난 적색편이를 분석



하여 먼 은하일수록 적색편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허블 법칙(Hubble Law)을 발표하였다. 왜 은하들로부터 오는 빛이 붉은 파장 쪽으로 치우치는 것일까? 그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먼 은하일수록 우리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에 그 후퇴하는 속도만큼 파장이 붉은 쪽으로 치우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여 계산된 은하들의 거리(현재는 5000만광년 범위^[3])와 은하들의 적색 편이 관계를 그려놓은 것을 허블 도표라고 한다. 허블 도표에서 하나의 직선의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울기 즉 비례 상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허블 상수(H_0)라고 한다. 허블 상수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은하들의 적색 편이를 통해 후퇴 속도(v)를 얻으면, 허블 관계식($v = H_0d$)을 이용해 은하까지의 거리(d)가 쉽게 구해지기 때문이다. 그럼, 이것이 우주의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빅뱅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한 후, 팽창하면서 점점 커지고 식어져 현재의 우주의 모습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가정에 의해 우주의 가장 바깥쪽 물질들은 매우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서 빛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그대로 허블 관계식에 적용하면, 빛의 속도(c)는 허블상수(H_0)와 가장 먼 은하까지의 거

리(d_{max})의 곱으로 표현될 것이다. ($c = H_0d_{max}$) 만약, H_0 가 71km/s/Mpc로 결정될 수 있다면, 대략 d_{max} 는 137억 광년 거리로 계산된다. 이것을 우주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고, 빛의 속도로 거기에 이르려면 137억 년이 걸리므로,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한 지 137억 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가 137억 년 되었으려면, 우주는 반드시 한 점에서 시작했어야 한다. 그리고, 원인은 모르지만 그 한 점이 폭발했어야 한다. 그 다음, 계속 일정하게, 지금 관찰하는 은하들로부터 결정된 허블 상수와 동일한 비율로 팽창해 왔어야 한다. 게다가, 그 우주의 가장 자리로부터 오는 빛의 속도는 결코 변함이 없이 137억 년을 달려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그러할 때만, 우주는 137억 년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빛의 성질조차 잘 알지 못한다. 은하들이 나타내는 적색 편이의 원인이 모두 후퇴 속도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현재 지구에 도달한 빛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할 뿐이다. 그 자료들을 통해 우주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이 아주 먼 거리에서 왔으니 매우 오래 전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빛의 속도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공간에서 일정하고, 우주의 팽창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이 없으면, 먼 거리가 곧 오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137억 년은 결국 빅뱅의 가정 아래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역사가 빅뱅이기 위해 덧붙여진 수많은 가정들^[4]이 오류로 드러날 때마다 우주의 나이는 계속 고쳐져야함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렇게 자꾸 바뀌어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정확한 우주의 시작을 알고 있으며(창1:1), 태초에 거기 계셨던 분에게 있어서 우주의 나이를 알려주시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사 40:21)

노회성 / 과학교사

- [1]. [2] 안태인 외 11인,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18, 29, 2011
- [3] Don DeYoung, The Hubble Law, Journal of Creation 9, no 1: 7-11, April 1, 1995
- [4] Lerner, E.J. et al, An open letter to the scientific community, New Scientist, May 22, 2004.

창조과학탐사

간증 / 동부사랑의교회 & 다사이플교회
4/25-27, 2016



그랜드캐년 가는 버스안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강의나 영상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도움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 지식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함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박혜선

제일 감사한 것은, 확신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전파에 대한 확신입니다. -박승희

저는 이번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진화론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현중

왜 하나님은 말씀 한 마디면 모든 것을 금방 이루어질수 있는데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태초의 땅을 눈으로 확인하고 모든 것에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Kay Cho

25년동안 한번도 와보지 못했던 그랜드캐년에 이제만 선교사님과 함께 올수 있었다는 것이 아주 감사했습니다. -최현규

어머니랑 둘이 창조과학 탐사에 참여했는데 어머니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김소피아

아이들과 대화중 빅뱅이 가능하다는 무식한 엄마의 말에 아이들이 놀라 저의 믿음까지 의심 받았던 기억이 나며 넘 부끄러워 돌아가면 꼭 사과해야겠습니다. -한경숙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 ACT Schedule

5/31—6/8	창조과학탐사 (전주동은교회), 이재만
6/4, 7	창조과학세미나 (한인세계선교대회), 노회성
6/8—13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교수), 이재만
6/15,16	창조과학세미나(LA사랑의교회VBS), 노회성
6/20—23	창조과학탐사 (예수인교회EM), 김선욱
6/22—29	창조과학탐사 (햇볼트리니티 CEO스쿨), 이재만
6/25—27	창조과학탐사 (KIBI America), 김낙경
7/3—10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7/14—20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교수), 이재만
7/21—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6—29	창조과학탐사 (전주목원교회), 이재만
7/30—8/4	창조과학탐사 (크리스천언론기자), 이재만
8/4—8/12	창조과학탐사 (인천온누리교회/와이즈마더링), 이재만
8/15—8/19	창조과학탐사 (일본팀), 이재만
8/22—8/26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이재만
8/29—9/1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노회), 이재만
9/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